

“노령연금 쪼개서라도 이웃과 나눠야죠”

광주 화정3동 행복경로당
‘동네 수호천사 후원’ 동참
매달 1% 2천원 평생 기부

“꼬박꼬박 노령연금을 받잖아. 우리가 행복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것은 이웃과 국가의 도움이 있어서 아니겠어? 조금이라도 그에 대한 보답을 해야 사람의 도리지.”

광주시 서구 화정3동 ‘행복경로당’ 어르신들이 동네 이웃을 돕기 위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기부를 실천하는 ‘평생 나눔’에 나섰다.

행복경로당 회원 25명은 지난 2월부터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매달 2000원씩을 통장으로 자동이체하고 있다. 이 후원금은 다시 화정3동 복지협의체로 전달돼 복지사업에 쓰인다.

주민들로 구성된 화정3동 복지협의체는 독거노인 방한지원과 결식아동 도시락·요구르트 배달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행복경로당 어르신들의 후원금은 그동안 기금이 부족해 미처 손길이 닿지 못했던 독거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 자녀 등을 발굴해 지원하는데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경로당을 오가는 길에 보면 생계를 위해 폐지 줍는 또래 노인들이 많아. 우리는 그나마 경로당에 모여 음식도 나눠 먹고 수도도 떠는데, 먹고 살려고 고생



광주시 서구 화정 3동 행복경로당 회원들이 우리 동네 이웃돕기 등 사회봉사 실천을 위한 회의를 연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화정3동사무소 제공〉

하는 친구들 보면 안스럽지. 요즘은 혼자 집에 남아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고근석 화정3동 행복경로당 회장)

이번 평생기부에 나선 행복경로당 어르신들은 69세에서 85세 노인들이다. 자신들의 처지도 넉넉지 않음에도 이웃을 돕기로 한 것은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어서다. 점차 혼자 사는 노인들이 늘고 부모들의 맞벌이에 홀로 남아 방치되는 아이들을 보면서 가슴아팠

다고 한다.

회원들 상당수가 자녀들에게 받는 용돈이나 노령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처지다. 일부는 노인일자리에 사업에 참여해 임금으로 받는 한달 20여만원으로 생활하고 있다. 그럼에도 올해 초 동주민센터에서 ‘동네 수호천사 후원자’를 모집하자 행복경로당 어르신들은 곧바로 회의를 열었다. 매달 정부에서 지원받는 노령연금 20만2000원 중 1% 가량을 후원자하는데 모두 동의했다.

경로당 총무 윤형주(71세)는 “이웃을 돕는다는 소식을 듣고 회의를 열어 사업에 참여해보자는 의견을 모았다”며 “동네 어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고근석(85) 화정3동 행복경로당 회장은 “비록 여유롭지 못해 더 많은 금액을 후원할 수는 없다”며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우리 동네 이웃을 위해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전남, 보리·밀 재배 면적 늘고

양파값 두 배·마늘값 70% 폭등

전남 영농·농산물값 동향

올해 전남도내 벼 재배 면적은 16만 7000ha로, 1모작은 오는 5월 25일부터 6월 5일, 2모작은 6월 15일부터 6월 21일이 이앙 적기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리와 밀 재배 면적은 1만9397ha로, 지난해(1만 9279ha)에 비해 118ha가 늘었다.

전남도는 18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도내 농가들이 못자리 설치, 모내기, 양파·마늘 수확 등 당면 영농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오는 5월 1일부터 한 달간 시·군, 유관기관 등과 함께 농번기 일손돕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벼 이앙 실적은 8,2ha로, 전남도는 도내 저수율이 76%에 이르러 모내기 용수 공급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

다. 보리·밀 수요가 증가하면서 재배 면적이 118ha 늘었으며, 예상 생산량은 보리 3만2000t, 밀 8000t 등으로 나타났다. 보리는 농협과 식품업체, 밀은 국산밀산업협회와 계약을 맺어 재배하고 있다.

전국 재배면적의 51%를 차지하는 양파는 9437ha, 23%인 마늘은 5094ha에서 재배중이며, 밭피기(포전) 거래로 각각 3.3㎡당 1만~1만2000원, 1만1000원에서 1만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해 8000~1만1000원, 9000~1만1000원보다 높은 가격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가격 동향에서도 지난 15일 현재 양파는 전년대비 2배 이상, 마늘은 70% 가까이 가격이 상승했다.

전남도도와 각 시·군은 양파·마늘 병해충 방제 등 생육 상황을 점검하고 밭 주산지 중심의 분산 출하를 유도해 가격 하락을 예방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

전남, 노인복지에 허리 휜다

지난해 1조1679억 전체 예산의 18.6%…4년간 53% 급증

전남도 사회복지와 노인 장애 예산이 최근

4년 동안 5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전남도 예산 증가 폭보다 훨씬 큰 것으로 앞으로 일반 사회복지 수요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관련 예산 부담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사회복지와 노인 장애 예산은 지난 2012년 7932억원으로 전체 도 예산(본예산 기준·5조3503억원)의 14.8%를 차지했다. 2013년에는 8382억원으로 전체 예산(5조6406억원)의 14.9%를 차지했다.

2014년에는 1조3399억원으로 전체 예산(5조8032억원)의 17.8%, 2015년에는 1조 1679억원으로 전체 예산(6조2820억원)의 18.6%를 각각 차지하는 등 도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와 노인 장애 예산의 비중이 커지

고 있다.

올해는 1조2170억원으로 전체 예산(6조 4352억원)의 18.9%를 차지했다. 사회복지와 노인 장애 예산이 최근 4년 동안 53.4% (4238억원) 증가한 것이다.

이 기간에 전남도 전체 예산은 20.3%(1조849억원) 늘었다. 사회복지와 노인 장애 예산 증가 폭이 도 전체 예산 증가 폭보다 훨씬 큰 것이다. 사회복지 예산은 주로 기초수급비, 노인장애 예산은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 지원금 등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기초수급비 지원 기준이 완화되고 노인 인구 증가함에 따라 매년 복지 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국비는 물론 지방비 부담도 해마다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남해화학 본사 여수 이전

국내 최대 비료 생산업체…70여명 여수로

연간 60만t 수출…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남해화학주식회사의 서울 본사가 여수에 이전한다.

여수시는 18일 “남해화학주식회사가 제조시설이 있는 여수로 본사 이전을 추진 중이며, 빠르면 이달 중으로 옮겨 올 것”이라고 밝혔다.

중화학공업 발전을 목적으로 1974년 여수에 설립된 남해화학주식회사는 국내 토양과 작물에 알맞은 고품질 친환경 비료 등을 생산 공급하는 국내 최대의 무기질 비료 회사다. 현재 서울 본사에는 7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본사가 이전되면 이들 직원 전원이 ‘여수 살이’를 시작하게 된다.

남해화학주식회사는 내수 판매와 함께 연간 약 60만t의 무기질 비료를 수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화학, 유류, 에너지 합작 사업 등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제조기업이다.

상장회사인 남해화학주식회사는 1998년 농협중앙회가 농자재 사업확장을 통한 농민의 실익 증진을 목적으로 56%의 주식을 보유한 농업인 기업이기도 하다.

남해화학주식회사 관계자는 “4월 중에 본사 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어서 본사가 여수로 옮겨 오면 직원과 가족 이동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



세계김치축제·김장대전 11월 18일 통합 개최

광주 남구 김치타운

맛의 고향 광주를 대표하는 김치축제가 오는 11월 18일 김장대전과 통합해 열린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세계김치축제위원회(위원장 남성우)는 최근 총회를 열어 올해 김치축제를 11월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광주 남구 입암동 김치타운에서 열기로 했다. 축제시기는 배추 등 김장 재료 출하 시기다.

올해는 그동안 별도로 개최하던 김장대전도 동시에 개막한다. 김장대전은 김치축제 폐막 후인 12월9일까지 계속된다.

축제의 콘셉트를 ‘함께 나누는 김장’으로 정하고 프로그램도 김장문화를 반영해

구성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김치축제의 산업화의 해답을 김장산업 활성화를 통해 찾는다

는다는 계획이다. 방문객이 축제장에서 김장을 해 갈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프로그램도 김장의 공동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꾸밀 예정이다.

김치에 한정했던 전시·시연했던 남도 음식 품목을 늘리고 광주에서 생산된 농산물 직거래장터, 농·축산물 홍보 판매장도 지난해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축제위는 광주 김치의 세계화를 위해 수출 바이어 초청 세미나를 열어 수출계와 체결, 해외도시와의 문화교류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3당 체제 호남정치’ 1면에서 계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 결과 분석에 따르면 국민의당의 호남 정당지지도는 평균 47.9%였으며, 더민주는 30.2%를 기록했다. 호남이 지역구 선거는 국민의당 후보에게 표를 주었지만, 정당투표에선 국민의당과 더민주로 표가 갈려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준 것이다

이는 호남 유권자들이 지역발전과 호남의 정치적 위상 강화를 위해 실용적인 선

택을 한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박 교수는 “이번 총선 결과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호남 유권자들에게 기회와 과제를 동시에 받았다”면서 “더민주는 향후 호남 민심 회복, 패권주의 청산 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국민의당은 호남의 절대적 신뢰를 받기 위해 향후 정국 운영에서 캐스팅보트를 어떻게 행사하는지에 따라 민심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SKY in Seoul

초혼
추천회원

재혼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인텔빌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전주시 서산동
02) 521-4405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최소식
유한바이오 클리코엔 (N)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당뇨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01 식후 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0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입니다.

03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 입니다.

※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
DAUM 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문의 H.P 010-3598-7080/1899-3975

말하는 법 1%만 바뀌도 인생이 바뀝니다~!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육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격도 올라가게 되어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집니다.

성공을 부르는 스피치~!
직장인 스피치
면접 준비없이 나간다는 것은 위험천만입니다. 본원에서는 기업체·금융사·임용고시·경합직 등등 취업을 목적으로 한 면접준비 실천과정을 통하여 취업률에 맞춘 지원합니다.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 222-2255, HP. 010-9441-7000
·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전환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우송하여 드립니다.